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12.24. ~ 2019.1.17.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산 중에 위치하고 있으며, 변화가까지는 차로 15분 정도 걸립니다. 건물은 5층까지 있으며 수영장과 식당이 있습니다. 건물 출입구는 하나고, 가드가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산이라고해서 그렇게 벌레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처에 다른 어학원 하나가 위치해 있어 고립된 느낌은 아닙니다.
수업	수업은 100% 영어로 현지 선생님들과 하루에 8시간 진행되며, 그룹 수업 4시간, 1:1 수업 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날 레벨 테스트를 거쳐 등수대로 그룹을 나누고, 그 그룹대로 그룹 수업이 진행됩니다. 수업은 수다 반, 교재 수업 반으로 수업 자체가 딱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 할 거리가 없으면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 진행을 도와주시고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유도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 영어회화 실력을 늘릴 수 있었으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대신 수업 간에 쉬는 시간이 10분 밖에 없어서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Activity	엑티비티는 평일에 한번, 주말에 한번 진행됩니다. 주로 평일에는 게임을 하고 주말에는 외부로 나가서 활동합니다. 엑티비티를 통해 학생들끼리는 물론 선생님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으며, 다양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룹 또는 1:1 수업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반 선생님들과도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어색하지 않게 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동계에는 건기라 한달동안 3~4일 정도만 비가 왔습니다. 낮에는 적당히 더웠고 밤에는 선선한 여름밤 날씨였습니다. 햇빛이 따가우니 선크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건물 내부는 가드가 24시간 경비를 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외부에서는 휴대폰과 지갑 관리를 잘 해야합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휴대폰 두고 나오지않게 주의하세요. 화장실에 휴대폰 두고 나왔다가 누가 가져가서 저는 현지에서 새로 구매했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v)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있을 건 다 있고 매일 청소해주셔서 깔끔합니다. 가끔 바퀴벌레나 벌이나 도마뱀 출몰하는데 가드 부르면 잡아줍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현지에서 종합 벌레퇴치 스프레이 하나 사두시면 유용할 것입니다.
식사	학교식당(v)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 한식 위주로 나오기는 한데 맛이 애매합니다. 국은 맛있습니다. 아침은 주로 빵, 샐러드, 스프가 나옵니다. 필리핀 현지 쌀이라 밥이 날아다녀서 먹으면서도 배고픕니다. 덕분에 더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교통	택시와 FB를 주로 이용합니다. FB는 카풀처럼 큰 차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FB는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합니다. 자주 바가지 씌우니 정가를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890,000	출국 전 사전 납부
환전	679,200	600달러
휴대폰	149,800	7000페소
합계	1,569,200	환전에 휴대폰 값 포함

5. 출국 전 준비사항

1. 상비약 챙기기

은근히 약국에 약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서 두둑히 챙겨오세요.

(목감기약, 소화제, 설사약, 두통약, 생리통약, 상처 연고, 소독약, 밴드, 습윤 밴드)

2. 옷

현지에 무난한 옷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난한 옷 사기 많이 힘드니 한국에서 챙겨오세요. 교실에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긴바지도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3. 선생님들 선물

정 없는 성격이라 선물을 준비 안해갔었는데,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선물만큼 특별한 선물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김이나 불닭볶음면, 한국 화장품(토니모리 틴트 같은거) 몇 개 사가시면 마지막날 선물 준비할 때 수월하실 거예요.

4. 비상금 준비하기

저는 첫 날부터 휴대폰 잃어버리는 탓에 생활비에서 7000페소를 뜯어 썼어야 했습니다. 넉넉히 600달러 준비해가서 생활에 지장은 없었으나, 현금으로나 마스터 카드에 여윌 돈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기대 없이 갔었는데 영어 실력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의 경험 하나하나가 만족스러웠습니다. 선생님들과 서로 장난치고 수다 떨었던 기억들 하나하나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미드, 영드에서만 들었던 영어를 쓰면서 타국인과 대화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영어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게 신기했고 새로웠습니다. 눈치 안보고 마음껏 영어 발음 굴릴 수 있던 것도 좋았습니다.

매주 다양한 드레스 코드가 주어지는 Fun Friday에 우스꽝스러운 패션도 도전해보고, FB타면서 현지인들과 대화도 해보고, 수업 끝나고 맥주 마시면서 술집에 있는 노래방 기기로 노래도 불러보면서 지루한 일상을 깨 볼 수 있었습니다. 수업 끝나고 택시나 FB 외에도 지프나 트라이시클을 타고 Public market에 가서 필리핀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갖고 있었던 편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웠고 기대되었습니다.

물론 힘들었던 기억도 많았지만 선생님들이 위로해주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셔서 쉽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선뜻 다가와주는 분위기이므로 먼저 다가가면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영어가 잘 안통해도 바디 랭귀지나 장난치는 것으로도 많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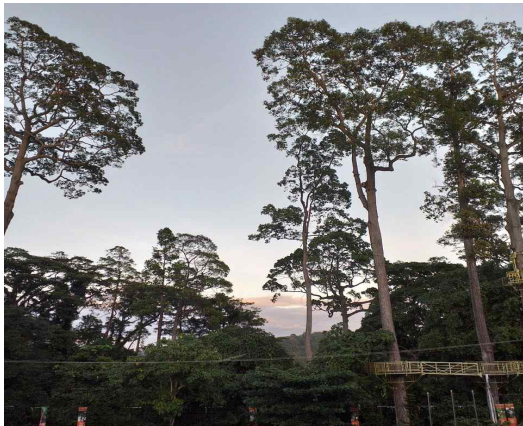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Fun Friday !



Activity (요트 타기)



어학원에서 보이는 풍경



1:1 T.Tristan 생일



금정왕 T.Jommy와 하트



TL.Ace와 우리 그룹